# FUTURE *in* RETROSPECT

과거가 꿈꾼 미래가 현재에 도착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낡은 미래 위에 새로운 내일을 다시 그린다.

WRITER HAN SANG HYUK

뇌파를 시각 이미지로 변환하는 마리코 모리의 대형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
Mariko Mori, 'Wave UFO', 1999~2002, Installation view at Kunsthaus Bregenz, Austria, 2003, Photograph by Richard Learoyd.

1



2



3



4



5



**1** 팝스타의 모습으로 변신한 작가 자신을 미래적 이미지로 연출한 작품. Mariko Mori, 'Birth of a Star', 1995. **2** 2026 프리즈 서울 포커스 섹션에서 파운드리 서울이 선보인 오묘초의 '시스카티아(Siskatia)'. Foundry Seoul, Frieze Seoul 2026, Focus (F03), Installation view, Courtesy of the artist and Foundry Seoul, Seoul, Photograph by Jeongkyun Goh. **3** 프리즈 서울 하우스의 전시 〈Summer Sparks Ⅱ〉에 설치된 오묘초의 작품. Omyo Cho, 'Nu-flare', 2025, Installation view of 'Summer Sparks Ⅱ', Frieze Seoul House, Courtesy of the artist and Foundry Seoul, Seoul, Photograph by Jeongkyun Goh. **4** 고대 일본의 석조 의례 공간에서 영감을 받은 마리코 모리의 설치 작품. Mariko Mori, 'Flat Stone', 2006, Collection of SCAI The Bathhouse, Tokyo, Installation view of 'Oneness', PinchukArtCentre, Kyiv, 2008, Photograph by Richard Learoyd. **5** 유리와 금속을 결합해 유기적인 형태를 구현한 오묘초의 조각 작품. Omyo Cho, 'Motifs Sent by the Future: Ripples from Afar', 2025, Courtesy of the artist and Foundry Seoul, Seoul, Photograph by Jeongkyun G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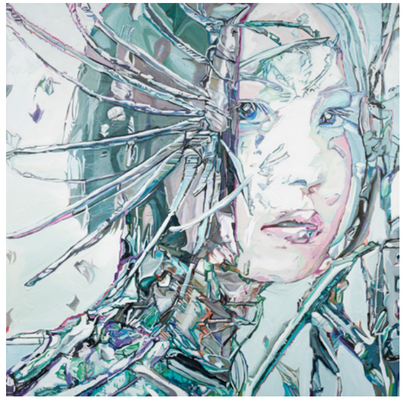
6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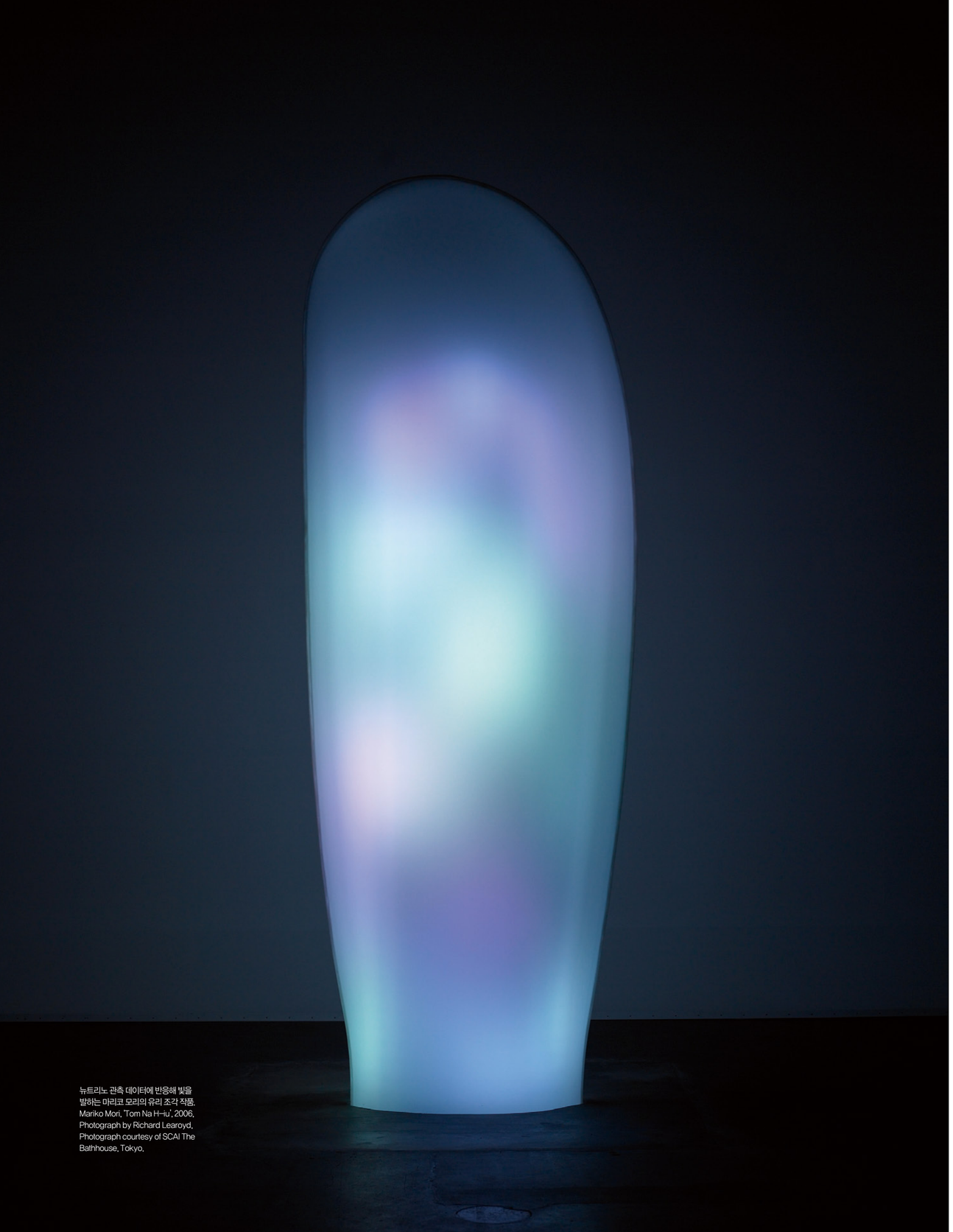
**6** 뇌파에 반응하는 영상이 투사되는 마리코 모리의 'Wave UFO' 내부 전경. Mariko Mori, 'Wave UFO' (Interior), 1999~2002, Photograph by Tom Powel. **7** 1990년대 테크노 K-팝 스타들이 재해석된 듯한 김민희의 회화 작업. Minhee Kim, 'Crystal Eyes', 2022, Courtesy of the artist and CON_, Tokyo. **8** Minhee Kim, 'D.J.S.C.O', 2022, Courtesy of the artist and CON_, Tokyo. **9** 오키나와 미야코섬 나나코만의 자연환경 속에 설치된 마리코 모리의 빛의 기둥. Mariko Mori, 'Primal Rhythm: Sun Pillar', 2011, Installation view at Nanako Bay, Miyako Island, Japan, Courtesy of Faou Foundation, New York, Photograph by Richard Learoyd. **10** 2026 프리즈 서울 포커스 섹션에서 선보인 CON_의 부스 전경. CON_, Frieze Seoul 2026, Focus (F05), Installation view, Courtesy of the artist and CON_, Tokyo.

10






도쿄의 전자 제품 매장 앞에 사이보그처럼 분장한 마리코 모리가 서 있는 사진 작품. Mariko Mori, 'Play with Me', 1994.



뉴트리노 관측 데이터에 반응해 빛을 발하는 마리코 모리의 유리 조각 작품. Mariko Mori, 'Tom Na H–iu', 2006, Photograph by Richard Learoyd, Photograph courtesy of SCAI The Bathhouse, Tokyo.

서울, 홍콩, 도쿄, 상하이. 급속한 재개발과 디지털화를 거치며 모습을 바꿔온 동아시아의 도시에는 유독 미래를 상상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한다. 대중문화에서 이른바 '쇠맛'으로 불리는 금속성 신체와 인공 생명체, 디지털 기술로 다시 태어난 신화적 세계까지. 이곳에서 미래는 한 번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미지와 현재의 기술이 만나 끊임없이 다시 쓰인다.

지난 9월 막을 내린 프리즈 서울은 이러한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면이었다. 2026년 프리즈 서울에는 새로운 큐레이션 섹션인 '스포트라이트'와 '머티리얼 프랙티스'가 처음 도입됐고, 기존의 '포커스 아시아'는 '포커스'로 이름을 바꾸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의 신진 갤러리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포커스에서는 서울의 도시 풍경에서 미래의 생명체를 상상한 오묘초와 1980년대 사이버펑크 미학을 현재의 언어로 다시 그려낸 김민희가 각각 파운드리 서울과 CON_의 솔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다. 오묘초는 인간이 사라진 이후 지구에서 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김민희는 사이버펑크와 여성 신체의 이미지를 교차시키며 현장에서 벽화를 완성했다. 아트 페어의 부스가 하나의 작은 전시 공간이자 독립적인 세계로 기능하는 지금, 페어와 전시의 경계 역시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도쿄 모리 미술관에서는 마리코 모리의 대규모 회고전 〈Mariko Mori: All That Shines〉가 개막했다. 구겐하임 재단과 협력해 약 40점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직접 미래의 존재를 연기했던 1990년대의 사진과 영상부터 최신 기술, 불교적 우주관과 의식에 대한 탐구가 결합된 대형 설치 작품까지 30여 년의 작업을 한자리에 모았다. 서로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두 장면이지만, 프리즈 서울과 마리코 모리의 회고전은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상상해온 미래는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시 만들고 있는가?

## 과거가 꿈꾼 미래

1967년 도쿄에서 태어난 마리코 모리는 분카 복장학원에서 패션을 공부한 뒤 런던의 첼시 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현대미술가의 길로 들어섰다. 1990년대 초 그의 작업에서 패션과 코스프레, 대중문화의 기호가 뒤섞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화면이자 매개체로 삼아 당대의 기술과 대중문화가 만들어낸 미래의 이미지를 직접 입고 연기했다. 'Subway'(1994)에서 모리의 모습은 미래의 사이버 여전사를 연상시킨다. 인공적인 헤어와 메이크업, 금속성 의상을 갖춘 그는 지하철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 등장한다. 현실적인 도시 풍경 속에 삽입된 비현실적인 존재는 당시 승객의 무심한 시선과 부딪히며 더욱 낯선 장면을 만들어낸다. 'Play with Me'(1994)와 'Birth of a Star'(1995)에서도 그는 팝스타와 미래 존재 사이를 오가며 인간의 신체와 정체성을 기술과 이미지의 언어로 다시 구성했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도 새로운 미래의 이미지가 대중문화 전반으로 번지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 가수 이정현과 엄정화의 음악과 뮤직비디오에는 테크노 사운드와 사이버 이미지, 인공적인 신체가 전면에 등장했다. 오늘날 에스파와 르세라핌을 비롯한 K-팝 아티스트의 비주얼에서 반복되는 이른바 '쇠맛' 역시 이러한 계보와 느슨하게 맞닿아 있다. 유기적인 금속 형태, 비인간적인 신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미지들은 과거가 상상했던 미래가 오늘의 기술과 미학을 통해 다시 호출된 결과처럼 보인다.

이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바라본다면 레트로퓨처리즘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운 실마리가 된다. 레트로퓨처리즘은 단순히 과거의 미래 이미지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과거가 상상했던 미래를 현재의 기술과 감각으로 다시 해석하는 과정에 가깝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이 흐름은 서구의 미래주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급속한 도시 개발과 산업화, 디지털화라는 압축적 시간을 경험한 세대의 기억과 욕망이 그 안에 함께 들어 있다. 과거의 미래와 현재의 미래가 한 화면에 겹쳐지는 것이다. 김민희의 작업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롭다. 그는 K-팝과 애니메이션, 인터넷 문화가 만들어낸 이상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회화로 가져와 신체와 욕망, 기술과 통제의 관계를 다시 묻는다. 프리즈 서울 포커스에서 CON_이 선보인 신작들은 1980년대 사이버펑크의 미학과 현대의 메타버스적 감각을 교차시키며 여성의 신체를 사이보그적 표면처럼 분절하고 변형한다. 현장에서 제작한 벽화 역시 이러한 긴장을 확장하는 장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과거의 미래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프리즈 폐막 후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CON_은 김민희의 작품 여러 점을 판매했고, 서울의 한 컬렉터로부터 신규 커미션도 받았다. 과거의 사이버펑크 이미지가 현재의 미술 시장에서 다시 살아 움직인 셈이다.

## 아직 오지 않은 세계

그렇다고 마리코 모리의 작업을 단순히 '과거의 미래'로만 볼 수는 없다. 그의 작품은 늘 현실보다 조금 앞서 있거나 뒤늦게 도착하는 듯한 시간 감각이 존재한다. 2000년대 이후 그는 과학자, 연구자와 협업하며 첨단 기술을 불교와 고대 신화, 자연과 우주 이미지에 접목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Wave UFO'(1999~2002)다. 방문자의 뇌파를 감지해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이 대형 설치 작품은 당시의 첨단 기술을 인간의 의식과 우주에 대한 명상으로 연결했다. 모리 미술관은 이 작품을 세계 최초로 뇌파 바이오피드백을 사용한 예술 작품으로 소개한다. 'Tom Na H–iu'(2006)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고대 켈트의 영혼과 환생에 대한 신화에서 출발한 이 조각은 도쿄 대학교 우주선연구소의 슈퍼가미오칸데 중성미자 관측 시스템과 연결되어 중성미자가 검출될 때 빛을 발한다. 고대의 신화가 최첨단 과학 기술을 통해 현재의 조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오묘초의 작업 역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를 물질의 형태로 옮긴다. 2026년 프리즈 서울 포커스에서 파운드리 서울이 선보인 그의 첫 몰입형 설치는 미래의 지구에서 생명이 바다를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자연과 식물의 흔적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조각들이 부스를 하나의 미래 생태계처럼 만들었다. 그의 작업에서 유리와 금속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다. 녹인 유리에서 유기적인 형태를 끌어내고, 금속과 돌, 레진 등 서로 다른 물성을 결합하면서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낸다. 오묘초가 서울의 도시 풍경에서 발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생성과 변형의 과정이다. 전쟁과 식민 지배 이후 급격하게 재건된 도시, 사람이 다시 조성한 숲과 산, 오래된 장소와 새롭게 만들어진 풍경이 겹쳐진 서울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미래적 생태계다. 그래서 그의 미래는 어쩌면 도착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이 작업을 흥미롭게 만든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눈앞에 세우는 것. 오묘초의 조각은 그 낯선 가능성을 손에 잡힐 듯한 물질로 바꾼다.

우리는 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고, 그 미래에 매료되는 걸까?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그것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데 있지 않다. 주어진 현실을 유일한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앞에 다른 가능성을 세워놓는 일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익숙한 세계의 질서를 다시 배열하는 일이다. 우리가 상상한 미래는 대부분 도착하지 않은 채 낡아가지만, 미래를 상상하려는 인간의 욕망만큼은 늙지 않는다. 오늘날 복고적으로 보이는 마리코 모리의 은빛 의상과 초기 컴퓨터 그래픽 역시 당시에는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신체와 정체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탐구하던 가장 동시대적인 이미지였다. 지금의 오묘초 역시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한 하나의 미래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자신의 시대가 꿈꾸는 미래를 그 위에 덧씌울 것이다. 동아시아의 도시는 끊임없이 미래를 만들어낸다. 기술적으로 진보했지만 인간성이 결여된 사회라는 익숙한 미래 서사의 이면에는 스스로 도시를 바꾸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온 사람들의 욕망이 있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열망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향한 호기심. 어쩌면 그것은 근대 이후 동아시아가 압축적으로 경험해온 변화의 시간 속에서 생겨난 가장 현대적인 감각인지도 모른다.